

추석

온 가족이 감사함으로
함께 드리는 명절 가정예배

“더 예수님처럼” 더 온누리 교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며 우리 가정에 베풀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며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그 영광을 나의 기쁨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사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통일 460) **지금까지 지내온 것** 301
 은혜와 사랑 Kyo made mamorare kitarishi wagami
 T. Sasao, 1897 어호와에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삼상 7:12) 크신 은혜: 8.7.8.7.D. 박재훈, 1967

보통으로

1.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 라
 2.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힘 받아 살았네
 3. 주님 다시 보을 날이 날로 날로 다 가와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 루말 하라
 물붓듯은 주께 말 겨 벗을 날 도 멸잠네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 펴주시고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

모든 일을 주안에서 행 통하게 하시네
 아버지의 품안에 서고 찬영토록 살리라

쉬운 기타코드(capo=3rd) Eb→C Bb→G Cm→Am Ab→F G→E Fm→Dm F7→D7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족을 한 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오다가
 명절에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가족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지나온 삶에는 감사를,
 다시 살아가야 할 걸음들에는 격려와 복을 내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서로 나눌 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더욱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내도록 결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 시편 128편 1~6절 ----- 다 같이

- 1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 2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 3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 4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 5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 6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가정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시편 128편에는 가족 구성원들을 가리키는 단어들이 거의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남편(1, 4절), 아내, 자식(3절), 후손(6절). 그래서 이 시편은 마치 한 가정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 가정의 가장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소개 됩니다. 그리고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합니다.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대표 나무들입니다. 그 앞에 ‘결실’과 ‘어린’이라는 표현이 붙은 걸로 보아, 이 가정은 풍요롭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듯 보입니다. 여기서 눈여겨 볼 만한 표현이 있는데, 이 한 가정을 향한 축복이 안방에서 식탁으로, 식탁에서 시온으로, 시온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로, 점차 확대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한 가정에 머무르지 않고, 가정을 넘어 지역과 나라로까지 확장되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큰 곳에서 작은 곳이 아니라, 작은 곳에서부터 큰 곳으로 향합니다. 이 땅의 모든 가정들이 축복을 갈망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행복이 세상의 행복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가정의 행복을

세워갈 수 있을까요? 4절은 그 방법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장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내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후손들이 시편 128편에 약속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외란 무엇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경외라고 이야기 합니다. 이 두려움은 압도적인 힘에 의한 공포심이나 무서움이라기보다는 자녀가 부모와 떨어지게 되었을 때 느끼는 두려움입니다. 부모와 떨어지지 않기 위해 그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부모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려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여호와를 닮아가는 가정입니다.

지금 우리 가정은 무엇을 닮아가고 있을까요? 우리 가정이 가장 힘써 구하는 것과 우리 가정이 가장 행복을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들 속에 우리 가정이 경외하는 대상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땅의 무언가들, 곧 썩어 없어질 것들을 경외한다면, 우리 가정의 행복은 유한하고 곧 한계에 부딪힐 겁니다. 그러나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을 경외한다면, 우리 가정의 행복은 영원할 것입니다. 이번 명절 기간, 영원하신 분을 경외하는 일에 대해서 온 가족이 함께 이야기해보는 건 어떨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자, 자녀들이 부모에게 보일 수 있는 가장 큰 효도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더온누리 온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나눔 질문 : 이번 명절 기간, 각자 어떤 모습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임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다양하고 풍성한 고민과 실천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강을 넘치도록 경험하는 명절 되세요.

함께 축복 - - - - - 다 같이

온 가족과 함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서로를 축복하고 받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함께 마침 - - - - -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 - - - - 다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